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주일

하느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으니,
이 주일 잔치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 박철수 유미영(마리안나) 가정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이 공동체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는 가정은 미리 전례분과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침례

- 첫 금요일 미사 : 2/1(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 : 2/2(토)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목주의 기도
- 첫 목요일 미사 : 2/7(목) 오전 10시

청소년 겨울 현장학습

- 일시 : 1/20(일) 오후 2:00 ~ 4:00
- 장소 : Snow Creek
- 회비 : 20불

설날 합동위령미사

명절을 맞아, 새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미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위령 미사는 2/10(일) 오전 11시입니다.

Archbishop' s Call To Share

캔사스 대교구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기금 마련에 저희 한인 공동체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래 개인별 1년 약정 봉헌인데, 저희는 두 차례(1/27과 2/3)에 걸친 ‘목적 현금’으로 대주교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본당 제대와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미리 전례분과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한 자루에 3불입니다. 축복식은 2/3(일) 중심미사 때 있습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26(토) 오후 5시
- 장소 : KU 성 로렌스 성당

기타

- 1월 한 달, 매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 모임’은 쉽니다.
- 이번 주일(1/20), 중심미사 때 사제관(듀플렉스) 이전에 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주일(1/20), 중심미사 후 평협 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1/27),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 2012년 연말정산용 교무금 납입 증명서 발급합니다(1/27).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34	216	165/166	3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이우영(가브리엘)
	안지영(카타리나)	이원준(요 한)
차주	정수한(베 드 로)	문석찬(요 셉)
	정예찬(미 카 엘)	문예나(요 안 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조장균(바 오 로)
	김주연(세실리아)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예레미아)
	박혜정(카타리나)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신혜경(마리아), 박혜정(카타리나) 박계숙(헬레나), 김인자(글라라)
차주	최선윤(마리아), 정연숙(막달레나) 황의정(율리안나), 김제은(수산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6	95명	625불	2,330불
1/13	101명	429불	1,700불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자칫 잔치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신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신부인 새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사가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미사를 통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인간적인 물들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희생과 사랑의 포도주를 청하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천지창조-빛과 어둠을 가르시다
(Michelangelo Buonarroti, 프레스코 1511,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 1,3-5)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미켈란젤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강력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이사 62,1-5 <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



주 님 의 기 적 을 만 백 성 에 게 두 루 알 려 라 -

○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 드려라. 온 누리여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퍼뜨려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 알려라. ◎

○ 주님께 드려라 만백성 족속들이 영광과 힘을 주님께 돌려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려라. ◎

○ 거룩한 옷차림 하고 주님께 조배드려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무서워 떨어져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정의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시도다. ◎

제 2 독서 : 1코린 12,4-11 <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 2,1-11 <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

세 마

청주교구 주교님께 보낸 편지



+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로다.

공경하올 교구장 주교님께!
주교님의 명을 받고 이곳 캔사스에 파견 된지, 5개월 쯤 접어듭니다. 무더운 여름에 왔는데, 벌써 계절이 바뀌어 겨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문안을 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교님과 교구 신부님들 모두 영육 간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염려 덕분에 미국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곳 캔사스는 미국 대륙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사람들의 심성이 느긋하고 평화롭습니다. 물론 저희 한인 공동체도 충청도 정서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 순박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주일미사 참례가 90 ~ 110명 정도 되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자영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며 정착한 교민들과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유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공소-맨하탄과 로렌스-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기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공소 역시 대부분 유학생들과 교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30명이 미사에 참례하고 식사를 나누어 먹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재정은 교무금과 헌금, 도네이션 등으로 충당되며, 성당 렌트비 및 사제관 렌트비, 사제 의료보험비, 기타 공공요금 및 행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역대 신부님들의 노고와 공동체의 노력으로 약간의 기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재정 보고는, 귀국하신 전임 박 신부님에게 보고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제관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차츰, 하느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들 속에 지난 세월, 사제로서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쫓기듯 살아 왔는지... 사제의 삶에서 '참된 고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제로서의 삶을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을 생각하며 성찰하는 기나긴 피정이라 생각합니다.

공경하올 주교님!
저는 마지막 파견 강복 때, 주교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특별한 재주와 능력은 없지만, 이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와 저희 캔사스 공동체에 주교님의 강복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미약하나마 저도 교구를 이끄시는 주교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며, 언제나 마음 깊이 그리워하는 청주교구에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2013. 1. 18.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영길 토마스 신부 배상



마 중 물

천사들과의 미사



미사 때마다 많은 천사들이 사제를 돕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한 무리의 천사가 미사성제를 돕기 위해 내려온다.” (성 그레고리오)

“천사들은 사제를 둘러싸고 미사 집전을 돕는다.” (성 아우구스티노)

“미사가 거행되자 성전은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하느님의 희생 제사를 찬미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로 가득찬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미사의 효과는 너무나 훌륭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관대함이 한이 없기에 예수께서 제대 위에 오실 때만큼 은총을 청하기 좋은 때는 없다. 그때 우리가 청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주어질 것이며, 미사 중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모든 기도와 희생과 순례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무리지어 하느님을 찬미 할 때 자신들의 정원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자비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성녀 비르짓다는 미사에 대한 환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수많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제대를 둘러싸고 사제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찬미가를 불렀는데 하느님이 몸소 그 미사성제를 바라보시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하고 눈먼 피조물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과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미사에 임하고 있었는지요! 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이로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신다면!”

도미니코회의 복자 헨리 수소가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대 주위를 둘러싸고 사랑의 환희에 젖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도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미사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하느님의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톨릭 사제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폴 설리만 신부의 『천사에 관한 모든 것』에서-

‘신앙의 해’ 교육자료



15. 신자들은 먼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거나, 돈과 쾌락을 의지하고, 명예나 권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먼저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첫 고백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경 전체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것을 하느님과 관련시켜 말합니다. 십계명이 모두 첫째 계명(“하느님을 흠숭하라”)을 밝혀 주듯이 신경의 모든 구절은 이 첫 구절에 종속됩니다. 다른 구절들은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하느님을 더 잘 깨닫도록 해 줍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9항).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성 암브로시오).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